

광주의 하루... 22쌍 결혼 8쌍 이혼

〈2014년〉

전년보다 출생 1명·혼인 2쌍 줄고 사망 10명 늘어

광주시 예산 첫 3조원대 시대...수출 4년새 40% 증가

지난해 광주에선 하루 평균 34명이 태어나고 19명이 사망했다. 또 22쌍이 결혼한 반면 8쌍은 갈라섰다.

광주시가 18일 발표한 시정통계 '광주의 하루(1일)'에 나타난 2014년 광주의 모습이다. 이는 전년보다 매일 출생은 1명, 혼인은 2쌍이나 줄었지만, 사망은 1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혼 건수는 동일했다.

하루 평균 자동차 등록 대수는 58대, 건축허가는 11건, 화재 발생은 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9건이나 늘었다. 실제 등록된 자동차 대수도 지난해 기준 58만9334대로 전년 대비 2만1280대(3.75%)나 증가했다. 이 중 승용차가 2만4432대나 늘어난 반면 승합차는 872대 감소했다. 1일 물 사용량은 39만1000㎥, 전력사

용량은 2만2458MWh, 석유류와 도시가스 소비량은 각 2633㎥과 157만2000㎥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처리한 민원서류 건수는 2만328건이었으며, 징수한 지방세는 39억1400만원, 버스과 지하철 승승인원은 45만5000명이었다.

인구는 149만2948명으로 전년 148만8467명 보다 4481명이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 45만1936명, 광산구 40만6074명, 서구 31만1985명, 남구 22만1120명, 동구 10만1833명 순이었다. 외국인 주민은 총 2만4466명으로 전년 2만2291명보다 2175명이 늘었으며, 외국인 주민 자녀도 전년보다 478명이 늘어난 4997명으로 조사됐다.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3조1033억원을 기록, 개청 이래 처음으로

출생 34명	사망 19명	혼인 22쌍	이혼 8쌍
급수 39만1천㎥	전력 22,458MWh	차 등록 58대	전출입 1340명

3조원 시대를 열었다. 공무원 수는 7100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 공무원은 2331명(32.8%)으로 공무원 3명 중 1명이 여성이었다. 수출은 2010년 115억8000만달러에서 40% 정도 증가한 16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인구가 증가세

인데도 2009년 1월 1430t에서 지난 2013년 기준 1327t으로 100t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최근 환경 업무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수상실적을 내고 있는 '친환경 도시 광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알린 美 2명에 '광주 명예시민증'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국내외에 알린 외국인 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조지 카치아피카스 티모시 스콧 사룻

광주시는 "오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제50주년 시민의 날 및 광주인권현장 선포 3주년 기념행사에서 미국인 조지 카치아피카스(66·George Katsiaficas), 티모시 스콧 사룻(64·Timothy Scott Shorrock)에게 광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초빙 교수(2001, 2007~2009년)를 역임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의 40여개 대학에 알리고, 2010년에는 오월여사상을 수상했다.

지난 14일에는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아시아의 민주 불꽃을 담은 '아시아의

민중불꽃 1·2권'을 출간했다.

티모시 스콧 사룻은 미국연방공무원노동조합(AFGE) 정책 분석관이자, 네이션지 미국국가안보정책 정기기고자 활동 중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당시 미 국무성과 주한 미대사관 사이의 비밀 정보를 공개해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 총서에도 실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절박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절반이 80대

16년후엔 모두 사망 할수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80세 이상 고령자로, 생전에 가족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이산가족 지원단체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 9668명이며 이중 생존해있는 사람은 6만 7640명(52.2%) 뿐이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이 6만2028명(47.8%)에 이른다.

생존자 중에서도 90세 이상이 8363명

(12.4%), 80대가 2만8784명(42.5%) 등 8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54.9%에 달한다. 70대 1만8309명(27.1%), 60대 6890명(10.2%) 등까지 합쳐 계산하면 생존해있는 이산가족 신청자 10명 중 9명이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위원회는 한 해에 평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4135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생존 신청자도 16년 후엔 2031년에는 모두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속도는 더딘 탓에 생존해있는 신청자들도 생전에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광주-대구 상생 '달빛동맹' 민간협력위 공식 출범...23개 협력사업 추진·교류 행사

영호남 대표 도시인 광주·대구가 상생 발전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오후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린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 창립 총회'에 참석해 상대 도시 민간협력위원 각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양 도시에서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3명 등 각각 15명씩 총 3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민간협력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경제·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해마다 2회씩 정기회의도 연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기존 달빛동맹 추진과제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민간 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율했다. 150여명으로 구성된 대구시의 광주 방문단 일행은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옛 전남도청 부지(광주 동구 광산동)에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민주의 종' 타종식 행사에도 함께 했다.

광주 방문단은 또 광주 대상공원에 마련된 '대구시민의 숲'을 찾아 기념식수를 했다. '광주시민의 숲'은 대구 두류공원에 마련돼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앞으로 23개 협력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광주-대구 등 영호남 화합을 위한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 문화탐방교류 시민 등 200여명이 18일 오후 광주시 북구 대상공원에 조성된 '대구의 숲'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업 추진과 함께 상호교류 행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21~22일에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광주를, 28~29일에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대구를 교차 방문하고, 다음달 10~12일에는 광주에서 달빛 스포츠 교류행사로 개최된

다. 이번 스포츠교류전에는 야구(초·중·고교)와 축구경기(대학)가 열리며, 대구에서 12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7월 광주에서 열리는 U대회에 대구시의 민간인 등이 광주 도우미로 파견될 예정이며, 광주시는 7월 말 대구 두류공

원에서 개최 예정인 대구치맥페스티벌에 방문단을 보낼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가 지난 2003년 대구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구 파견단은 U대회 성공 개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에 무게

檢, 성원중 특사 수사 착수

성원중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놓고 노무현 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면 업무를 처리한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이날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들을 선정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와 사면 업무를 놓고 청와대와 주고받은 서면,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에 최종 올라가기까지 법무부가 준비한 자료와 내부 의견서 등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성 전 회장이 설립한 서산정책재단에서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집중 분석 중이다. 서산정책재단은 장학·교육·문화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통로이자 정치적 외곽조직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19일까지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사법처리 수준과 시기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뇌물죄보다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에서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 한번의 수술로 해결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정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